



보도일시

2020. 4. 23.(수)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

시민의숲1963
추진단

단 장	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
팀 장	유 인 환 (☎ 063-281-2712)
담 당 자	이 무 준 (☎ 063-281-2713)

총 매 수

4매 (첨부자료 2매 포함)

사 진

유 ☐ 무 ☒

영 상

유 ☐ 무 ☒

옛 대한방직 부지, 시민 공론화 본격화

- 시민공론화위원회, 갈등·도시계획·사회경제·회계(감정평가)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1명 구성
- 의제 설정을 통한 미래예측형 시나리오워크숍 후 타운홀미팅 또는 공론조사 등 공론화방식 채택
- 부지 개발 가능 여부,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, 기반시설 적정 여부, 개발이익 환수 등 공론화

-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옛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화된다.
-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미래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한 ‘시민공론화위원회’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.
- 그간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시민공론화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, 언론, 시의원,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전준비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긴밀한 회의를 갖고 공론화 방식 결정, 의제 설정,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, 운영 규정(안) 등을 결정했다.
- 우선 대한방직 부지의 공론화 방식으로는 의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장·단점을 토론했던 뒤 적합한 대안을 모아내 미래를 예측하는 ‘시나리오워크숍’을 진행할 계획이다. 이러한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‘타운홀미팅’이나 충분한 학습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론을 도출하는 ‘공론조사’ 방식을 실시기로 했다.
- 공론화 의제는 대한방직 부지의 △개발 가능 여부 △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 △기반시설 적정 여부 △개발이익 환수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검토기로 했다.

-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속성을 고려해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준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갈등 전문가 1명, 도시계획 전문가 1명, 사회경제 전문가 2명, 회계(감정평가)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.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여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회적 합의로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.
- 이러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근거 마련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, 위원 구성 및 선정, 위원 임기, 전문가 자문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(안)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키로 했다.
- 시는 이 같은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△사회적 갈등 최소화 △특혜 논란 차단 △투명한 시정운영을 통한 행정 신뢰 향상 △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다.
- 이희진 시민공론화위원회 사전준비위원장은 “시민공론화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,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- 한편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,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.

***붙임: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촉**

『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』

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촉

추진배경

- ◆ 옛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나,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향의 설정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민,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.
- ◆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로 인한 특혜의혹에 대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
- ◆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여건 악화, 주변지역의 환경 악화,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검토 필요

□ 시민공론화위원회 기능

- 공론화 의제에 대한 논의
- 시민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
-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토
-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 도출

□ 그간 추진상황

-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추진 계획 수립 '19. 11. 25.
- 시민공론화 사전준비위원회 추진 '20. 02. ~ 04.
- 2개월간, 회의 5회 추진

□ 위원 구성 현황

○ 인 원 : 11명

○ 기 간 : 2020. 5. ~ 시민공론화위원회 종료 시까지

○ 위촉 위원 명부

연번	분 야 별	성 명	소 속	비 고
1	공론화 전문가	이희진	(사)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	사전
2	"	이승모	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내교수	
3	도시계획 전문가	이양재	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	사전
4	"	오용준	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	
5	사회경제 전문가	유대근	우석대 유통통상학부 명예교수	
6	"	엄영숙	전북대 경제학부 교수	
7	회계(감정평가) 전문가	최종문	현대감정	
8	언론인	홍인철	연합뉴스	사전
9	전주시의원	박선전	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	
10	시민단체	이정현	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	사전
11	"	김남규	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	사전

□ 금후계획

○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위촉 '20. 5.

○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'20. 10.

※ 시민공론화위원회 추진 시 변동될 수 있음.